



2021 경주마라톤대회가 11월 6일부터 28일까지 경주시 일원에서 비대면 언택트 레이스로 펼쳐진다. 참가자들에게는 레이스 판초, 뉴발란스 반팔 티셔츠, 경주월드 자유이용권(왼쪽부터) 등의 푸짐한 기념품도 주어진다.

“원하는 시간에, 비대면으로 달려요”...2021 경주마라톤 18일부터 접수

선착순 7000명...11월6~28일 언택트 레이스 레이스판초·티셔츠·싱글렛·메달 등 기념품 푸짐

“거리두기하며 비대면으로 자유롭게 달리세요”

2021 경주마라톤대회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비대면 언택트 레이스로 개최된다.

경상북도, 경주시, 동아일보, 스포츠동아가 공동 주최하는 2021 경주마라톤 언택트 레이스는 11월 6일부터 28일까지 펼쳐지며, 10월 18일부터 접수한다. 신청 완료자는 레이스 기간 중 ‘비대면 거리두기’ 원칙에 따라 본인이 원하는 시간에 GPS 기록측정 애플리케이션

(스트라바, 런데이, NRC 등)을 활용해 달리면 된다.

참가자 기념품은 경주월드 패키지의 경우 가족이 즐길 수 있는 경주월드 자유이용권과 함께 레이스 판초, 뉴발란스 반팔 티셔츠, 싱글렛, 메달 등이다. 참가비는 4만 원이다. 경주월드 자유이용권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3만 원이다. ‘모처럼 달리기(경주)’, ‘거기가 여가규’, ‘폴템장작 레이스’, ‘지구야 아프지마’ 등 다양한 이벤트도 준비돼 있다. 자세한 사항은 경주마라톤 홈페이지 및 공식 인스타그램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회 사무국은 “천년고도 경주 세계문화유산을 체험하고, 가족들과 함께 경주시 랜드마크인 경주월드에서 좋은 추억을 남길 수 있도록 준비했다”며 “지나해에도

접수 2일 만에 조기 마감된 만큼 올해도 접수를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주시는 이번 대회가 ‘위드 코로나 시대’를 어떻게 헤쳐 나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성공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남정현 기자 yoshike3@donga.com

- 접수기간 : 10월 18일(월)부터 선착순 7000명
- 대회기간 : 11월 6일(토)~ 28일(일)
- 부문 : 10km, 5km
- 코스 : 경주시 일원
- 참조 : 경주마라톤 홈페이지(www.gyeongjumarathon.com)
- 문의 : 카카오톡 채널 '경주마라톤'

주최 : 경상북도

경주시

동아일보

스포츠동아

주관 : spo-ex.com

the RED COMMUNICATIONS

협찬 : SK

한국수력원자력

KB금융그룹

new balance

POCARI SWEAT

경주월드

1위
ABC 공인 우루·발명부수
4년 연속 1위

스포츠동아

2021년 10월 18일 월요일
www.sportsdonga.com



포항 임상협(오른쪽 2번째)이 17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나고야 그램퍼스와 2021 아시아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8강전 도중 득점을 올린 뒤 환호하고 있다. 임상협은 2골을 뽑아 팀의 3-0 완승과 준결승 진출에 앞장섰다. 전주 | 김민성 기자 marineboy@donga.com

임상협 멀티골·이승모 추가골 포항, ‘한일전’에서 또 웃었다

나고야에 3-0 대승...12년 만에 ACL 4강
ACL서 J리그 팀과 17년 대결서 2번째 저
김기동 감독 “포항의 팀컬러 잘 보여줬다”



K리그1(1부) 포항 스틸러스는 일본 J리그를 만나면 신이 난다. 그리고 전주성에서 유쾌한 추억을 하나 더 쌓았다.

김기동 감독이 이끄는 포항이 17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나고야 그램퍼스(일본)와 2021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ACL) 8강전에서 멀티골을 작렬한 원 포워드 임상협, 뼈기골을 터트린 골잡이 이승모의 활약으로 3-0 완승을 거뒀다. 5년 만에 ACL에 도전한 포항의 준결승 진출은 챔피언에 등극한 2009년 이후 12년만이다. 포항은 20일 오후 7시 같은 장소에서 결승행 티켓에 도전한다.

포항은 득점 없이 팽팽히 맞선 후반 8분 세트피스 찬스를 놓치지 않았다. 오른쪽 코너킥 상황에서 비웃던 문전 혼전 중 이승모가 연결한 볼이 굴절돼 흐른 것을 임상협이 침착하게 마무리했다.

기세를 탄 포항은 거침이 없었다. 다급해진 나고야의 공세가 계속된 후반 25분 중앙 미드필더 신진호의 침투 패스를 이승모가 침착하게 트래핑한 뒤 과감하게 오른발 슛해 추가골로 연결했다. 전날(16일) 사전 기자회견에서 “일본을 만나면 정선무장이 단단해야 한다. 더 거칠어져야 한다. 꼭 득점하고 이겼으면 한다”

던 이승모의 바람이 현실이 됐다. 포항은 후반 추가시간 임상협이 멀티골을 완성시켜 3골자 대승을 거뒀다.

대회 3·4호 골을 터트린 임상협과 2호 골을 뽑은 이승모의 퍼포먼스도 눈부셨지만 무실점의 의미와 가치도 상당했다. 주전 골키퍼 강현무의 부상 이탈로 최근 실점이 크게 늘어난 김기동 감독이 고민 끝에 내세운 백업 수문장 이준은 이날 전반 33분 연속 슛을 막아내는 등 눈부신 선방쇼로 무실점 승리를 견인했다. “구성원 모두가 포항의 전통과 역사를 잘 인지하고 있다. 팀 컬러를 보여줬다”고 승리 소감을 밝힌 김 감독은 “이준이 어려운 상황에서 잘 막아냈다. 자신감을 얻는 큰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포항의 위대한 클럽 한·일전 선전의 역사가 반복됐기에 더욱 호뭇했다. K리그도, J리그도 맞대결을 걸려봐도 포항은 그렇지 않다. 적어도 아시아 클럽축구의 최강자를 가리는 ACL에선 무적에 가깝다.

포항은 이날 경기 전까지 ACL에서 J리그 팀과 16차례 격돌해 9승5무2패를 거뒀다. 특히 토너먼트 라운드에선 패한 적이 없다. 2010시즌에는 가시마 애플러스를 물리쳤고, 올 시즌에는 이미 16강전에서 세레소 오사카를 격파했다.

다만 이번 대회에선 순탄치 않았다. 6~7월 중립지역인 태국 방콕에서 펼쳐진 조별리그에서도 나고야를 만났는데, 2번 싸워 한 번도 못 이겼다. 0-3으로 진 뒤 1-1로 비겼다. 그러나 8강전에선 강렬한 설욕 의지로 나고야를 무력화시키는 데 성공했다. ▶관련기사 6면

전주 | 남정현 기자 yoshike3@donga.com



KMGM
HOLD'EM & EVENT PUB

KMGM 홀덤 이벤트펍 가맹점 모집

30평미만으로 창업 가능 / 1억미만 소자본 창업 / 업종변경가능

외식 유통 프랜차이즈 KMGM에서
미래를 함께하실 점주님을 모집합니다.

창업 상담 : 1644-7861

K-SPOBET

NEW

신개념 베링펍 프랜차이즈 총판모집

스포츠 / 축구 · 야구 · 농구 · 배구 · 홀덤 · 전종목

KSPOBET과 함께!
누구나 할 수 없는 창업이 성공한다!

문의 전화 : 010-8311-8411